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7. 11. 3.(금) / 총 11매(본문4)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나웅진, 사무관 천홍식, 주무관 권오준 • ☎ (044) 201-4337, 4338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계획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조규혁, 차장 성기광 • ☎ (032) 741-5310, 5292
보 도 일 시		2017년 11월 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5.(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평창 선수단,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들어온다 내년 1월 18일 공식 개장...4단계 사업 완료 시 여객 1억 명 수용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일이 2018년 1월 18일로 확정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3주 가량 앞둔 내년 1월 18일 공식 개장해 운영을 시작한다.
 -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오픈(1월 30일)과 현지 적응을 위하여 조기 입국하는 선수 및 대회 관계자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 제공 등 우리나라 대표 관문 공항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개장하게 되었다.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여객터미널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터미널이다.
 - 대한항공, 델타, 에어프랑스, KLM 4개 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고,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그 외 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에 남는다.
 - 제2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인천공항은 연간 7,200만 명의 여객과 5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세계적 수준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명실상부한 핵심 공항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주변공항들과의 허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관문 공항으로서 지난 2001년 3월 개항한 이후 이용객이 연평균 7.5% 증가하며 빠른 성장을 이뤄왔다.
 -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08년 6월 탑승동과 제3활주로 등을 증설하는 2단계 건설 사업을 완료했으며, 2009년 6월부터는 제2여객터미널과 제2교통센터 및 연결 교통, 부대 시설 등을 신축하는 3단계 건설 사업에 돌입했다.
- 3단계 건설 사업은 약 5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13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가 본격화됐으며, 착공 이후 510만 명의 인원과 87만 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구슬땀을 쏟아낸 끝에 마침내 지난 9월 말 완공됐다.
 - 3단계 건설기간 중 9만 4천 개의 일자리와 12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4조 8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제2여객터미널 운영으로 일자리도 약 8,500개가 늘어난다.
- 지금까지 총 4회의 종합시험운행을 통해 실제 운영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였고, 시설 및 시스템 안정화, 운영인력 교육과 관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면세점 등 상업시설 공사 및 입점, 항공사 이전을 적기에 마무리해 운영준비에 완벽을 기할 계획이다.
- 제2여객터미널은 출입국 대기 공간 확대, 자동탑승권발급 등 무인 자동화서비스 확대, 환승시설을 인접 배치한 환승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출입국과 환승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 특히, 버스·철도 대합실을 제2교통센터로 통합 배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며, 교통센터와 여객터미널 간 이동거리도 제1여객터미널에 비해 대폭 단축(223m→59m)됐다.
- 안내로봇, 양방향 정보안내가 가능한 운항정보표출시스템(FIDS) 등 각종 스마트 기술로 여객 안내를 강화하고, 최신형 원형보안검색기를 도입해 항공보안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 슬리핑 박스, 스포츠 및 게임 공간 등의 환승편의시설, 활주로와 항공기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탁 트인 상설 문화공간 ‘그레이트홀(Great Hall)’, 미디어월과 실내·외 대규모 조경 등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남은 2달여 동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운영 준비에 완벽을 기하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첨단기술로 더욱 편리해진 스마트 에어포트, 자연과 함께 숨쉬는 그린 에어포트,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아트 에어포트로서 국내·외 여행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세계 공항업계를 선도하는 공항으로서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인천공항이 국내 공항 최초로 세계 우수 공항들과 같은 복수의 국제선터미널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이용객들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천공항, 이제는 4단계다!”… 여객 1억 명 시대 준비

- 인천공항은 3단계 건설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제2여객터미널 시설을 확장하는 4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며 발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사업을 비롯해 최종 단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6일 확정했다.
-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항공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아태지역의 항공수요가 향후에도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사업을 통해 미래 항공시장을 선점하고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여객처리 능력은 연간 1억 명까지 확충된다.

- 세계 각국 공항이 경쟁적으로 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국제여객 1억 명 규모로의 확장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처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약 4조 2천억 원이 투입될 4단계 사업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연간 여객 처리 1,800만 명→4,600만 명)을 비롯해 제4활주로 신설, 진입도로와 계류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단계 건설기간 중 5만 명의 일자리와 8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2조 8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 올해부터 4단계 사업 설계에 착수해 2023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나, 완료시점은 항공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4단계 사업을 통해 인천공항은 인공지능(AI)과 생체인식,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더욱 확대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공항을 구현한다.
- 생체인식 기반 체크인 및 탑승 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검색 X-ray 판독, 고도화된 안내로봇 등이 그 예다.
- 또한, 공항 내부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아우르는 조경을 완성하고,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3배 이상 늘려 인천공항 에너지 사용량의 27% 이상을 충당함으로써 진정한 녹색공항, 친환경 공항으로 거듭난다.
- 인천공항은 4단계 이후 최종단계에 이르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통해 제3여객터미널과 제5활주로를 바탕으로 1억 3천만 명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됨으로써, 국제선 기준으로 싱가포르 창이공항(1억 3천만 명, 2025년), 두바이 알막툼공항(1억 6천만 명, 2030년)에 이어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p>공공누리 공경자격을 자유이용허락</p>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천홍식 사무관(☎ 044-201-4337), 인천국제공항공사 조규혁 팀장(☎ 032-741-53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참고 1

인천공항 3단계(제2여객터미널) 건설 개요

□ 사업개요

- '09~'17(9년간) 총4.9조원을 투입,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접근/연결교통 등 공항 인프라 단계적 확장추진

구 분	1, 2단계	3단계	비 고
여객터미널	5,400만명 (T1 ↔ 탑승동A)	1,800만명 (T2 일부)	7,200만명
화물터미널	450만톤	50만톤	500만톤
교통센터	250천 m ²	184천 m ²	
IAT	0.9km 복선서틀	1.5km 복선서틀	
공항철도	서울역↔김포↔T1 59.3km	서울역↔T1↔T2 연결철도 6.4km	65.7km
계류장	여 객	여객 109개소	여객 163개소
	화 물	화물 36개소	화물 49개소

□ 추진경위

- '09. 6 :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3단계) 변경고시(6차)
- '10. 6 : 3단계 기본설계 용역(공항시설 '10. 6, 건축시설 '11. 7)
- '12. 12 :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3단계) 변경고시(7차)
- '13. 6 : 제2여객터미널 땅파기 및 파일공사 착수
- '14. 8 : 여객계류장 시설공사 착수
- '15. 5 : T2 건축마감 및 부대설비공사 착수
- '15. 11 : IAT/BHS 터널구조물 공사 완료
- '16. 4 : 제2여객터미널 영구전원 공급
- '16. 4 : 제2여객터미널 상량식 행사
- '16. 10 : T2 수하물처리시설(BHS) 계통시험 착수
- '17. 4 : 시험운영 착수
- '17. 9 : 3단계 시공 및 시험운영 완료
- '17. 9~ : 운영준비 관속화

□ 연차별 사업비 현황

구 분	'13년이전	'14년	'15년	'16년	'17년	전체
사업비(억원)	2,058	5,360	11,210	15,401	15,274	49,303

□ 자원투입 현황(3단계 착공이후 완료까지)

- (인 력) 시공관리 등 150개 분야, 누계 510만 명
- (장 비) 덤프트럭 등 약 100여종, 누계 87만 대

* 피크('16. 3) 시 일일 자원투입현황 : 인력 8,000명, 장비 1,500대

□ 각종 비교 및 참고 수치

구 분	비교 대상		
	제2여객터미널	부르즈 할리 파	롯데월드타워
총공사비	2조 원 (3단계 전체사업비 4조9천억 원)	1조7천5백억 원 (15억달러)	1조7천억 원 (롯데월드몰 전체 사업비 3조8천억 원)
연면적	387천 m ² (코엑스몰 11만9천 m ² , 여의도공원 21만 m ²)	500천 m ²	328천 m ²
콘크리트 레미콘	216만 m ³	33만 m ³	19만5천 m ³ ('15.9기준)
건축물무게	89만톤	45만톤	75만톤
철근량	2만2천톤	3만9천톤	약4만톤
철골재량	7만4천톤 (에펠탑 10개 물량)	-	약4만톤
지붕면적	162,957 m ² (상암 월드컵경기장 전체면적의 3배)	-	-
외장유리 면적	9만7천 m ² (잠실야구장 면적의 약 7배)	17만4천 m ²	-

참고 2 인천공항 3단계 조감도 및 입주 항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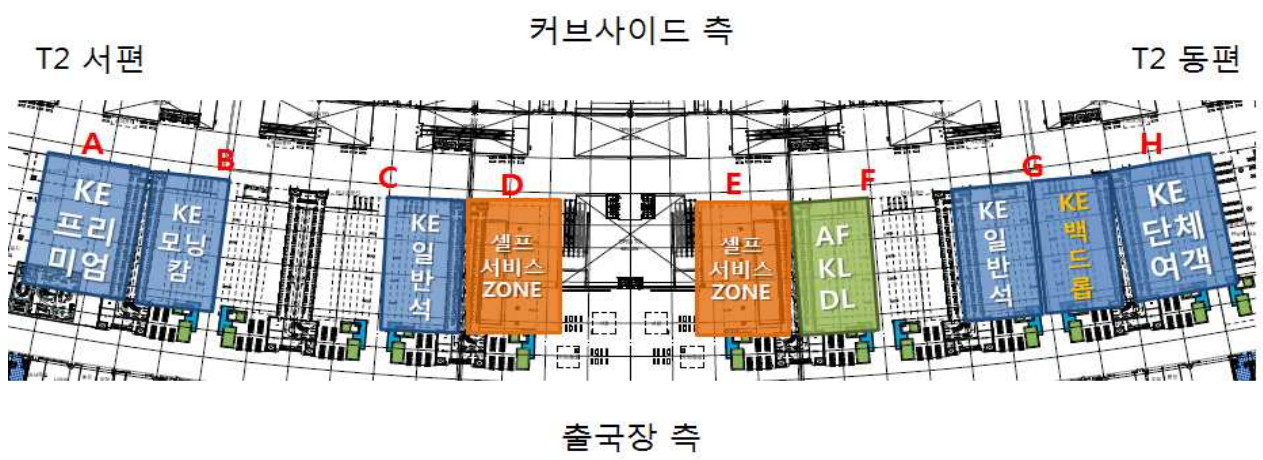
□ 조감도



□ 입주항공사

구 분	입주 항공사 ('18.1.18~)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델타, 에어프랑스, KLM
제1여객터미널/탑승동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 그 외 외국항공사

○ 제2여객터미널 항공사 배치(안)



참고 3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개요

□ 사업개요

- '17~'23(6.5년간) 총4.2조원을 투입,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계류장, 접근/연결교통 등 공항 인프라 단계적 확장추진

구 분		3단계까지	4단계	합 계
활	주	3본	1본	4본
여	객	387천 m ²	316천 m ²	703천 m ²
여	객	163개소(접현111)	73개소(접현35)	236개소(접현146)
화	물	49개소	13개소	62개소
B H S		141km	57km	198km
제 2 교 통 센 터		434천 m ²	82천 m ²	516천 m ²
T 2 주 차 장	단 기	3,722면	1,983면	5,705면
	장기(승용)	3,743면	8,700면	12,443면

- (사업기간) 2017. 7~2023. 12 (6.5년)
- (사업내용) 제2여객터미널 확장(증 2,800만명/년), 활주로 1본(제4활주로, 3,750m), 계류장(여객 73, 화물 13개소), 주차장(10,683면), 진입도로 확장 등
- (총사업비) 약 4.18조원(인천공항공사 자체조달로 추진)
- (사업기간) 2017.10 ~ 2023.12

* 시설포화 및 건설기간을 고려하여 '23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되, 향후 항공 수요 변화추이에 따라 완공시기 조정 가능

□ 향후 추진일정

- '17. 11 : 4단계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8. 9 : 제4활주로 시설공사 착수
- '19. 9 :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땅파기 등) 착공
- '23. 12 : 4단계 건설사업 완료

□ 4단계 조감도



참고 4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계획

구 분		1+2단계	3단계	4단계	총 계
활주로		3본	-	1본	5본
여객 터미널 및 탑승동	T1	507천 m ²	-	-	507천 m ²
	T2	-	*387천 m ²	316천 m ²	703천 m ²
	T3	-	-	-	480천 m ²
	Ca	166천 m ²	-	-	166천 m ²
	계	673천 m ²	*387천 m ²	316천 m ²	1,856천 m ²
여객계류장 (원격포함)		109개소	*54개소	73개소	318개소
화물계류장		36개소	*13개소	13개소	95개소
IAT (무인수송열차)		0.9km 복선서틀	1.5km 복선서틀	-	2.4km 복선서틀
교통센터		250천 m ²	*184천 m ²	82천 m ²	692천 m ²
BHS		88km	**53km	57km	268km
화물터미널		258천 m ²	-	-	493천 m ²
주차장 (면)	T1	11,410	*3,516	-	***14,926
	T2	-	*7,465	10,683	18,148
	T3	-	-	-	11,199
	화물	6,260	-	-	7,856
처리 능력 (연간)	운항	50만회	-	6만회	79만회
	여객	5,400만명	1,800만명	2,800만명	1.3억명
	화물	450만톤	*50만톤	130만톤	1,000만톤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86,011 (’92~’08)	49,303 (’09~’17)	41,852 (’17~’23)	

* : 시설개선 및 3단계 건설현황 반영

** : BHS 3단계 추가 확장규모(11km) 반영

*** : 임시주차장, 외곽주차장 제외(8,281면)

참고 5

주변 해외 경쟁공항 확장계획

구 분	용 량 (국제+국내)	터미널 현황(2017년)	용 량 (국제선)
두바이 공항	60백만명(두바이) → 160백만명('30, 알막툼공항)	◦ 터미널 : 3개 (60백만명→90백만명, '18)	60백만명(두바이) → 160백만명('30, 알막툼공항)
창이 공항	82백만명(現) → 135백만명('25)	◦ 터미널 : 4개 - T1 : 21백만명 - T2 : 23백만명 - T3 : 22백만명 - T4 : 16백만명	81백만명(現) → 134백만명('25)
인천공항	72백만명(現) → 100백만명('23) → 130백만명('29)	◦ 터미널 : 2개 - T1 : 54백만명 * 탑승동 포함 - T2 : 46백만명	71백만명(現) → 99백만명('23) → 129백만명('29)
홍콩공항	80백만명(現) → 110백만명('24)	◦ 터미널 : 2개, 탑승동 : 1개 - T1 : 45백만명 - T2 : 25백만명 - 탑승동 : 10백만명	78백만명(現) → 108백만명('24)
샬드골 공항	80백만명(現) → 120백만명('35)	◦ 터미널 : 3개 ◦ T4 : 40백만명('35)	74백만명(現) → 110백만명('35)
이스탄불 공항	아타튀르크 60백만명(現) → 이스탄불 150백만명(미정)	◦ 터미널 : 2개	아타튀르크 40백만명(現) → 이스탄불 110백만명(미정)
수원나품 공항	65백만명('20) → 125백만명(미정)	◦ 터미널 : 1개 - T1 : 45백만명 ◦ 위성터미널 : 20백만명 (19)	54백만명('20) → 90백만명(미정)
칼라룸푸르 공항	90백만명(現) → 110백만명('20)	◦ 터미널 : 2개 - T1 : 45백만명 * 탑승동 포함 - T2 : 45백만명 * LCC 터미널	60백만명(現) → 77백만명('20)
히드로공항	80백만명(現) → 미 정	◦ 터미널 : 5개	75백만명(現) → 미 정
프랑크푸르트 공항	70백만명(現) → 84백만명('21)	◦ 터미널 : 3개 - T1 : 58.6백만명 - T2 : 12.8백만명 ◦ T3 : 14백만명 ('21)	62백만명(現) → 74백만명('21)
푸둥 공항	80백만명('19) → 160백만명(미정)	◦ 터미널 : 2개 - T1 : 20백만명 - T2 : 40백만명	32백만명('19) → 70백만명(미정)
북경 공항	45백만명(現) → 100백만명(미정)	◦ 터미널 : 3개 - T1 : 5.5백만명 - T2 : 26.5백만명 - T3 : 63백만명	9백만명(現) → 20백만명(미정) (제2북경)